



공공성, 효율성 접목해 안전한 방폐물 관리,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성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서울대 지질과학 학사, 지구물리학 석사, 지구환경과학 박사
지구물리 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인천대교(주) 부사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미국 버지니아텍 객원연구원
에이엠파트너스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베트남국립대 호치민공대 초빙교수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객원교수
코센(TÜV SÜD KOCEN) 대표이사 사장 역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18~)

안녕하십니까?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 제4대 이사장 차성수입니다. 공단은 지난해 8월 기관 설립 9년, 본사 경주 조기 이전 6년 만에 처음 신사옥을 지어 입주했습니다.

신사옥 주변은 봄이면 벚꽃이 만발하고 주변에 김유신 장군묘, 노천박물관으로 불리는 경주 남산 등 문화유적이 이웃한 경주의 관광 명소입니다.

공단은 신사옥 입주 후 첫봄을 맞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코라드 벚꽃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방폐물관리사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는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원전 해체 폐기물, 고준위 폐기물 해법의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시기

코라드는 2009년 출범한 국내 유일의 방폐물 관리 전담 기관으로 ‘방폐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국민 생활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준정부 기관입니다.

2014년 준공한 중저준위방폐장 1단계 처분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올해는 2단계 표층 처분 시설 건설을 위한 인허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원자력계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원전 해체 폐기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고준위 폐기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이슈들이 현실화되면서 그동안의 임무와는 다른 차원의 중요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조직 역량 결집

코라드는 올해 기관의 2030 비전인 '안전으로 신뢰 받는 국민의 코라드' 실현을 위해 '안전한 방폐물 관리'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조직의 핵심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전한 방폐물 관리와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취임 후 단행한 조직 개편은 핵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조직 체계를 구현했으며, 단위 부서 간 유사 기능 조정을 통해 부서와 부서장의 수를 줄였습니다.

또한 방폐물 사업의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정책 재검토 조기 완료 및 재검토 결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사전 준비와 체계적 지원, 고준위 방폐물 관리 표준화 시스템 개발 과제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 해체 폐기물 상세 인수 기준 마련 및 처분 적합성 평가 기술 개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원전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해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방폐물 관리 전담 기관으로서 원전 해체 초기 단계부터 해체 기술 확보, 규제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민간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경험한 기업의 효율성과 준정부기관의 공공성을 접목해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의 위상을 확보하겠습니다.

단기에 성과를 내기보다는 조직의 역량을 강화해 중

저준위, 고준위, 원전 해체 등 방폐물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고유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방폐물 사업은 안전한 관리 기술과 사회적 수용성의 두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하는 사업입니다. 국민과 소통이 이뤄지지 못하면 기술적 안전성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과학·기술적으로 안전한 방폐장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처분 시설이 만들어지는 지역의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방폐물 책임지고 안전하게 관리

코라드는 국내 유일의 방폐물 관리 전담 기관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방폐물은 안전하게 관리하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을 통해 방폐물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믿음을 얻어 친환경적이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사성 폐기물 처분과 관리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 공통의 관심사인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국제 사회와 기술·인력 교류를 확대해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의 시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국민의 신뢰 속에 안전한 방폐물 관리와 방폐물 사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과제를 훌륭하게 수행해 글로벌 멤버원의 방폐물 관리 전담 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국민과 상생 협력을 통해 변화를 능동적으로 리드하는 주체(主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